

‘더 글로리’ 배우 임지연 “연진이 되기 전에도 전 항상 절실했어요”

최근 가장 주목받은 악역 캐릭터 열연
“잘될 줄 알았지만...이정도일 줄 몰라”
박연진 대사 하나 하나 온라인 밈 주목
화려한 데뷔 후 연기력 논란도 휩싸여
‘더 글로리’로 10년만에 연기 찬사로

데뷔는 누구보다 화려했다. 영화계 전체가 주목했다. 그러나 데뷔했을 때 받았던 그 관심이 그가 이후 10년 간 연기하면서 받았던 관심의 최고치였다. 최고 유망주였던 배우는 어느새 평범한 배우가 됐다. 그렇게 조금씩 잊혀지는 것 같았던 바로 그 배우가 10년만에 비상했다. 그가 출연한 드라마는 넷플릭스 비영어 TV 부문 1위를 달린다. 그가 연기한 캐릭터의 이름 그 자체가 밈(meme·온라인 유행 콘텐츠)이 돼 소셜미디어를 평정했다. 캐릭터 이름이든, 배우 실제 이름이든 간에 이제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배우 임지연(33)은 “너무 감사하고 많이 행복하다”고 했다. ‘더 글로리’의 그 대사, “연진아, 나 지금 너무 신나”가 떠올랐다.

“저희 엄마도 절 연진이라고 불러요.”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나온 드라마 중 가장 압도적인 관심을 받은 작품이다. 지난 10일 공개된 파트 2 누적 시청 시간은 1억2446만 시간이었다. 2위 작품보다 약 3.5배 높은 수치였다. 화제를 확인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언급량도 엄청나다. 인스타그램에서 ‘더 글로리’가 태그된 게시물은 7만5000개가 넘는다. ‘재벌 집 막내 아들이’ 약 4만5000개이나 ‘더 글로리’의 인기를 짐작할 수 있다. “솔직히 이 작품은 잘 될 것 같았어요. 확신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정도까지일 줄은 몰랐어요. 대사 하나 하나, 캐릭터 하나 하나까지 다 좋아해 주실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임지연이 연기한 ‘박연진’이 있었다.

‘더 글로리’가 공개되기 전 이 작품은 김은

숙 작가와 배우 송혜교의 합작품일 것 같았다. 출연진을 보면 송혜교 외에는 눈에 띄는 배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뚜껑이 열리자 상황이 달라졌다. 송혜교는 물론이고 임지연·정성일·박성훈·김희아·차주영·김건우 등 출연진 전체가 주목받게 됐다. 임지연은 “박연진이 아니라 다른 캐릭터였어도 이 작품을 했을 것이다. 그만큼 너무 재밌었다”고 했다. 그런데 운 좋게도 극 중 최악의 악인인 박연진이 임지연에게 다가왔다. “연진이 제대로 된 악역을 맡고 싶었어요. 그런데 기회가 없었죠. 제가 40대, 50대가 돼서 내공이 쌓인 배우가 되면 그때 정말 멋진 악역이 들어올 거라고 막연한 희망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연진이 온 거예요. 너무 맘에 들더라고요. ‘이건 무조건 내꺼다’라는 마음으로 연기했죠.”

박연진은 학교 폭력 가해자. 단순히 괴롭히는 정도를 넘어 고대기로 피해자의 온몸을 다치게 할 정도로 극악무도하다. 여차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을 정도다. 피해자인 문동은(송혜교)에게 어떤 복수를 당하더라도 그에겐 죄책감도 없고 당연히 반성도 없다. 문동은의 복수에 반격하고 또 반격할 뿐이다. 임지연은 “이왕 악역을 맡은 거 세상 사람들이 끝까지 박연진을 미워하게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연기했다”고 했다. 물론 쉽지 않은 연기였다.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닌데다가 욕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은 물론 시도 때도 없이 담배를 피워대야 했다. “하루종일 짜증내고 화를 내는 연기를 하고 오면 그 감정 상태에서 벗어나기 힘들더

라고요. ‘촬영이 끝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미간엔 주름이 계속 잡혀 있고요.” 그래도 임지연은 욕이든 담배든 뭐든 확실하게 하고 싶었다고 했다. “잘지게 욕하고 맛있게 담배를 피우려고 했어요. 전 그래도 연진보다 혜정이 가 더 나쁜 것 같아요.”(웃음)

임지연의 헌신적인 연기 덕분에 박연진은 생생해졌다. 그래서인지 박연진 대사 중엔 시청자 사이에서 회자되는 것들이 유독 많다. “알아들었으면 끄덕여” “왜 없는 것들은 인생에 관심없냐 인과응보만 있는 줄 알까” 등이 그런 대사들이다. 김은숙 작가 특유의 화려한 필력 덕도 있지만, 결국 이런 대사를 살아 숨쉬게 한 건 임지연이다. “작가님이 쓰신 대사가 워낙 좋아서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았어요. 지금 많이 언급되는 대사들은 저도 연기할 때 이전 임팩트가 있겠다 싶은 것들이었죠. 그래도 이 정도로 좋아해주실 줄은 몰랐어요.”

‘더 글로리’를 통해 연기 잘한다는 찬사를 받는 임지연이지만, 그가 항상 칭찬을 받았던 건 아니다. 오히려 한 때는 연기력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2014년 김대우 감독의 영화 ‘인간중독’을 통해 어떤 신인 배우보다 화려한 데뷔를 했지만, 연기력이 영글지 않은 상황이다보니 그의 연기를 두고 말이 많았다. 이후 출연한 작품들에서도 안정적인 연기를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고 이렇다 할 할모그레피를 남기지 못했다. 드라마에서 활약하기도 했지만, 이마저도 대중의 관심에선 벗어나 있었다. 그러다가 ‘더 글로리’를 만났다. 임지연은 “작가님이 제 안에 있는 악마의 심장을 보셨나 보다”라며 웃었다.

“윤종제 일찍 데뷔했어요. 연기도 잘 못했죠. 전 재능이 많고 끼가 다분한 타입이고 거리가 멀었습니다. 현장에서 혼날 때도 많았죠. 그래도 매번 정말 절실하게 연기했어요.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고 싶었달까요. 느리지만 저만의 길을 걸으면서 다양하게 도전하려고 했어요. 누가 알아주길 바라기보다는



제가 성장하는 게 좋아서 연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현장을 가고 연기를 하는 게 두려워요. 해냈을 때 성취감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연기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노력해야죠.” 임지연은 원하는 역할을 맡지 못하고 원하는만큼 캐스팅이 되지 않을 때도 연기를 그만두야겠다는 생각이 든 적도 있었다. “전 나이 먹고 할머니가 돼서도 연기할 생각이어서 조금씩이나마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임지연은 현재 가장 주목받는 배우가 되었지만, 연진가는 자신을 향한 이 관심이 사그라들 거라는 얘기를 했다. “캐스팅이 잘 안 되는 순간이 분명히 또 올 거예요. 지금은 연기 칭찬을 받지만 연기력 논란이 또 생길 수도 있죠. 그래도 전 그걸 이겨내는 성취감으로 배우 생활을 해요. 그게 제가 제 직업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조용필, 리모델링 前 올림픽주경기장 마지막콘서트 장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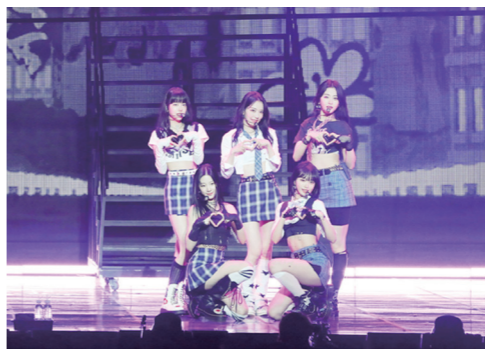
‘가왕’ 조용필(73)이 5년 만에 ‘한국 대중음악 성지’인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 무대에 오른다. 21일 소속사 와이피씨(YPC)와 콘서트 제작사 인사이트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조용필은 오는 5월13일 오후 7시30분 서울 올림픽주경기장에서 ‘2023 조용필&위대한탄생 콘서트’를 연다. 조용필이 이곳에서 공연을 여는 건 2018년 데뷔 50주년 콘서트 이후 처음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6월부터 리모델링에 돌입하는 기존 올림픽주경기장에서의 마지막 콘서트인 셈이다.

2018년 50주년 콘서트 이후 해당 공연장서 5년 만에 공연

1984년 개장한 올림픽주경기장은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린 상징적인 곳이다. 대한민국 모든 가수의 꿈의 무대로도 알려져 있다. 특히 반세기 넘게 대중음악에 살아 있는 전설로 자리매김한 조용필은 이 무대와 20년간 인연을 맺었다. 2003년 데뷔 35주년을 기념해 올림픽주경기장에서 국내 최초로 솔로가수 콘서트를 성황리에 열었다. 이를 시작으로 2005년 전국투어 ‘필&피’, 2008년 데뷔 40주년공

연, 2009년 ‘평화기원 희망콘서트’, 2010년 소아암 어린이 돕기로 연 ‘러브 인 러브’(2회), 데뷔 50주년 공연까지 총 여섯 번의 콘서트를 개최해 ‘7회차 매진’이라는 유일무이한 기록을 썼다. YPC는 “‘굿바이 서울올림픽주경기장!’이 될 이번 공연은 세대를 관통하는 조용필의 명곡과 함께 상징적인 공간을 기억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지난해 신곡 ‘잘나와’ ‘세레게티처럼’을 공개한 조용필은 그 해 말 케이스포돔(KSPO DOME·옛 체조경기장)에서 콘서트를 열어 건재를 과시했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연 공연인데 4일 공연을 매진시키며 대회 20여 곡을 절정으로 소화했다.

르세라핌, 데뷔 1년 만에 정규 1집 낸다



그들 ‘르세라핌(LE SSERAFIM)’이 데뷔 1년 만에 첫 정규 음반을 내놓는다. 20일 소속사 쏘스뮤직 등에 따르면, 르세라핌은 오는 5월6일 정규 1집을 발매한다. 르세라핌은 지난해 5월 미니 1집 ‘피어리스(FEARLESS)’와 같은 해 10월 미니 2집 ‘안티 프래자일(ANTIFRAGILE)’을 통해 4세대 대표 걸그룹 중 한 팀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정규 1집은 미니 2집 이후 7개월 만에 내는 것이다.

특히 르세라핌은 미니 2집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2022년 11월 5일 자)에 14위로 진입했다. K-팝 걸그룹 역사상 데뷔 이후 최단기간 해당 차트 입성 기록이다. 또 이 음반은 이달 초에 100만장이 넘게 팔려 밀리언셀러가 됐다. 르세라핌은 지난 18~19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국내 첫 팬미팅 ‘피어나다(FEARNADA) 2023 S/S’를 성료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팬덤 ‘피어나’에게 정규 1집에 실리는 신곡 ‘노 리턴(No-Return) (Into the unknown)’을 깜짝 선공개했다. 멤버들은 이날 “감정이 벅차오른다. 어떤 모습이면 사랑해 주시는 ‘피어나’ 분들도 보면 자신감이 생긴다. 단 한 번도 이 사랑이 당연하다고 느낀 적 없다. 여러분들이 주신 사랑에 적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저희의 모든 최선을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내 눈물 모아’ 서지원, 27년 만에 신곡...“음성 복원”

오는 27일 싱글 ‘리버스 오브 서지원’ 발매

90년대를 대표하는 가수 서지원(1976~1996)의 신곡이 그의 사후 27년 만에 발매된다. 21일 음반 제작사 유니뮤직에 따르면, 서지원의 목소리로 만들어진 싱글 ‘리버스 오브 서지원(Rebirth of Seo Ji Won)’이 오는 27일 발매된다. 서지원 이름으로 신곡이 나오는 건 1996년 3집 ‘메이드 인 헤븐(Made In Heaven)’ 이후 처음이다. 이번 싱글 타이틀곡은 ‘기다린 날도 지워질 날도’다. 음성 복원 기술을 통해 서지원의 목소리를 살려냈다고 유니뮤직은 전했다. 유니뮤직은 “약 1년6개월의 제작기간을 거쳐 곡을 완성시켰다. 목소리를 최대한 실제와 가깝게 내기 위해 보유한 서지원 음성 파일을

총동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주도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실력 있는 연주자들이 실제 연주한 생생한 사운드로 완성시켰다”면서 “음성은 인공지능(AI)이 복원시켰지만, 그 음성에 담긴 감정과 호소력은 실제와 흡사해 대중이 어색함없이 감상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그 결과물을 선보이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기다린 날도 지워질 날도’는 1989년 가수 이승환 1집 ‘BC 603’ 수록했던 곡이다. 작곡가 오태호가 작사·작곡했다. 오태호는 서지원 데뷔곡 ‘또 다른 시작’과 2집 수록곡 ‘아이 미스 유(I Miss You)’를 작사, 작곡했다. 서지원은 1994년 10월 셀프 타이틀의 앨범으로 데뷔했다. 미성과 미소년의 외모로 단숨에 인기를 누렸다.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데뷔 3개월 만에 SBS TV 예능프로그램 ‘점프 캠프’ 메인 MC를 맡았다. 일요일 황금시간대 방송됐던 SBS TV 예능프로그램 ‘전파왕국’을 이수만, 이소라와 함께 3MC로 진행하기도 했다. 또 드라마 ‘남녀공학’과 ‘라이벌’에 출연하기도 했다. 2집이 나오기 직전인 1996년 1월1일 세상을 떠났다. 유작이 된 2집은 타이틀곡 ‘내 눈물 모아’ ‘아이 미스 유’ 등이 크게 인기를 누리면서 대히트 음반이 됐다.

‘8년 열애’ 세븐·이다해, 오는 5월 6일 결혼

동갑내기인 가수 세븐(39·최동욱)과 배우 이다해(39·변다해)가 결혼한다. 세븐은 20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지난 8년이란 시간 동안 희로애락을 함께하고 부족한 저를 언제나 사랑으로 감싸준 저의 여자친구 이다해 씨와 오는 5월6일 결혼을 약속했다” 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한 가정의 가장이자 남편으로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다해 역시 이날 소셜 미디어에 “8년이라는 세월 동안 연애를 해온 저희라서 어쩌면 크게 놀라울 일이 아닐 수도 있을 텐데 뭐가 이리 속스러운지. 어떻게 말씀드릴지 혼자 고민이 많았다. 다가오는 5월 저희가 오래된 연인에서 이제 부부가 되기로 약속했다”고 적었다.



이어 “아직은 남자친구라는 말이 더 익숙하지만 그동안 제 옆을 든든하게 지켜주며 큰 행복을 준, 이제는 저의 평생의 반려자가 될 그녀에게도 좋은 아내로서 더욱 배려하며 큰 힘이 되는 존재로 살겠다”고 약속했다.